

“29일 영결식 무사히 넘어가나” 초긴장

100만 추모 인파 예상… 주말 대규모 집회 계획
민주당 책임론 제기 방침에 정치권 격돌 조짐

29일 실시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노제에 최대 100만명 이상의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7일부터 대규모 추모 집회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정치권에서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 제기하는 등 격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민심 폭발하나=29일 거행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관련해 100만명 이상의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여론이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다

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이번 영결식은 민심의 폭발을 일으킬 도화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의 7일장이 끝나는 29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건한 장례 분위기에 숨 죽였던 민심이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일시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불과 이를 만에 터져 나온 ‘복에 변수’도 과거와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증하고 있다.

오히려 고인에 대한 추모행렬은 빠르게 아래로 오하려 더욱 길어지고 있어 민심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

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단체들은 29일 영결식 이후인 주말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30일부터 용산참사 범위의 범국민대회, 공공운수연맹 집회 등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 시국모임(2일), 100만 촛불기념대회(10일) 등 대규모 도심 집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9일 영결식 당일이 상황 전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치러질 경우 수십만의 조문 인파가 광화문 일대로 모여들어 경찰로서도 통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29일과 30일, 전국 경찰에 감호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영결식 당일 200개 중대 경비력을 동원해 경복궁과 시청 주변에 배치하는 한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문화까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치권 격돌=그동안 ‘조문정치’ 모드

속에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던 정치권에도 차가 같은 조짐이 일고 있다.

여론의 심상치 않은 흐름에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가 ‘배후론’을 제기하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안 원내대표는 2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장으로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 이를 벤질시키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주’ 입장으로 말을 아끼웠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국민도 알고 땅도 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정세균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盧 서거’ 민주당 결속 촉매제

유시민 전장관·정세균 대표

서울역 분향소서 조문객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민주당에 화합을 불러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친노’(親盧)와 ‘비노’(非盧), ‘반노’(反盧)는 물론 주류, 비주류 등으로 나뉘어 계파간 갈등과 분열을 거듭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이후 구원을 뒤로 하고 모두 추모 행보에 동참,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려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세균 대표와 함께 서울역 분향소에서 상주자격으로 조문객을 맞고 있다.

민주당으로서 열린우리당 시절 당내 분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지난해 1월 탈당한 유전 장관이 걸끄러운 존재이지만, 과거를 뒤

로하고 힘을 합하고 있는 것.

참여정부 시절 두 번 구속됐다 두번 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 민주계의 박주선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봉하마을 빙소를 찾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다는 김종조, 신낙균 의원 등 구 민주계 인사들도 2003년 분단으로 노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지만 잇따라 봉하마을 방문, 노 대통령을 조문했다.

여기에는 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돈 받은 경위에 대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며 각을 세웠던 송영길 최고위원도 대한문 분향소를 지키며 상주 노릇을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민주당을 결속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장례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책임론 등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전망이어서 당내 단합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盧 서거’ 황당 음모론 인터넷 확산

경찰 전면 재수사로 증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음모론이 인터넷에서 여파 없이 퍼져 나가고 있다.

27일 주요 포털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시해설, 유서 조작설 등 추측성 글들이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문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경호관이 말을 바꿔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폭되고 있다.

한 네이티즌은 현장에서 고인의 접수가 발생된 것을 문제 삼았다. “어떻게 바위에서 뛰어내린 분의 접수가 저절로 벗겨질 수 있는가. 고인의 사망 경위가 조작됐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

투신 현장을 발견한 이후 초동 조치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 네이티즌도 있다. 한 네이티즌은 “경호원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인

을 발견하고 112를 부르지 않고 혼자 업고 후송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인이 실제로 조각사를 했는지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모론 확산에 불을 지핀 것은 한 언론사의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추모 그림 파일의 날짜였다.

파일이 제작된 날짜가 고인이 서거하기 하루 전인 22일로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언론사 그림 파일 논란은 파일 이름에 5월 22일이 표시된 것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확인됐고, 고인의 서거 당시 상황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투신자살’이란 사실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접수가 벗겨진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은 접수가 아니라 콤비 재킷이었으며, 경호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업는 과정에서 벗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투신 후 28분간盧 전 대통령 방치 됐었다

경호관 진술로 본 상황 재구성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행한 경호관의 경찰 진술이 번복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당시 행적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다음은 경찰의 27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행적.

검찰 수사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지친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 결심을 하고 23일 오전 5시21분께 사저 1층 거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 쓴 유서를 5시26분에 한차례 저장했다가 수정 했고, 이 파일을 최종 저장한 건 5시44분이

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5시45분에 경호동에 인터폰을 걸어 “산책 나갈까요?”라고 외출 사설을 알렸다.

당시 깨어 있던 권양숙 여사는 “나도 같이 갈까요?”라는 말에 노 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권 여사가 외출 준비를 하는 사이에 먼저 사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경호관과 함께 부엉이 바위에 도착한 시각은 6시10분께. 노 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 부엉이가 사나? 담배는 “부엉이 바위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래로 뛰어 내려갔고, 그곳에서 모로 누워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했다. 곧장 휴대전화 단축키를 이용해 동료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6시45분이었다. 이 경호관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맥박이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후 6시14분께 “정토사에 들려 선 법사가 있는지 보고 오자”며 심부를 보냈다.

경호관은 선 법사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6시17분께 부엉이 바위로 돌아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부엉이 바위 근처에 돌아온 이 경호관은 갑자기 ‘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래로 뛰어 내려갔고, 그곳에서 모로 누워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발견했다. 곧장 휴대전화 단축키를 이용해 동료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6시45분이었다. 이 경호관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맥박이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명박 지지율 급락

민주당 지지율 급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RI)의 5월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7.4%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6%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지난 4월(31.4%)에 비해 9.9%포인트 폭락한 21.5%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

포인트 급등한 20.8%를 기록하며 한나라당과 엇비슷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4월(13.0%)보다 7.8%